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자 료</h1> <p>5월 6일(수) 조간 (5.5. 12:00 이후 보도)</p>	
배 포 일	2020. 5. 4. / (총 3대)	담당부서	노인지원과
과 장	박 기 준	전 화	044-202-3470
담 당 자	한 두 희		044-202-3472
	박 소 영		044-202-3477

안전 최우선 노인일자리,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
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월 6일(수)부터 순차적 재개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5월 6일(수)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실외, 비대면 사업 유형부터 제한적으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.
 -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중단이 길어짐에 따라 현장의 사업 재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, 실내·실외, 밀집·분산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부터 순차 추진한다.
 - 다만 사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 두기 및 확진자 발생 추이,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 유지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.
-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2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"코로나19 관련 노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"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사업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별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, 매일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*를 점검한다.
 - * 기관 및 활동 장소 시설, 공간 등 청결소독 유지 관리 여부, 위생 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, 유증상자 활동중단 등 필요 조치 이행 여부 등

- 참여 어르신과 사업단의 감염 유입 방지를 위해 함께 근무하는 인원을 2인 이내로 최소화하고, 사업단별로 건강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열 및 증상 유무를 활동 이전에 반드시 확인한다.
- 또한 개인, 집단 방역지침 관련 교육을 필수 진행하여,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위해 철저히 노력한다.
-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
 - 초등학교 급식도우미, 스쿨존안전지킴이 등 학교를 수요처로 하는 사업의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개학 전까지 교내 방역 활동으로 대체하고, 대면으로 진행하던 노노케어*의 경우 유선으로 대체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.
 - * 홀로 거동이 어려운 취약 노인, 독거노인에게 인사 및 안부 확인, 말벗 활동, 생활상태 점검 등 서비스 제공
 - 또한 실내·밀집 활동으로 재개가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, 찾아가는 도서 대여 및 반납 서비스, 도시락 배달사업 등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합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·안내할 계획이다.
-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"사업 중단 권고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,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리며, 무엇보다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."라고 밝혔다.

< 참고 >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방역 관리 사례

참고

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방역 관리 사례

□ 경기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

○ 워크스루 방식으로 방문자 사전검사 실시

- 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총 5단계 워크스루 방식의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기관출입 허용
-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, 자가문진표 작성, 손소독, 발열 체크 후 이상이 없는 방문객에 안전팔찌를 제공하여 검사 여부 한눈에 파악 가능

○ 기관 방역 및 예방활동 철저

- 매일 정기적인 소독 실시, 코로나19 예방 문자발송 및 누리집 게시

○ 취약계층 비대면 서비스 제공

- 기관의 문화공연단인 '바람골' 어르신들의 콘서트 유튜브로 제공
- 외출이 힘든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새싹 및 콩나물 재배 키트 제공
- 사업 중단 및 사업 미실시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대체식품 제공 등

발열체크 및 예방법 안내



안전팔찌 부착제 시행

